

30년 단일대오 호남, 이젠 다당구도로

신당만 4개... 본선 혈전

민주당 공천=당선 사라져

지역민심 선택 중대 기로에

정치사의 주요 국면마다 통합을 외치며 민주당에 힘을 모아줬던 아권의 뒷발 호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권 분열 탓에 다당(多黨) 구도의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은 사라지게 됐다.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전경배 신당 등의 후보 간 본선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세력은 지금까지 분열과 통합의 역사를 반복했지만, 호남의 지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

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안철수·전경배 의원 등 신당 세력의 출현으로 제1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등 호남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부 독재라는 공통된 적에 맞서 단일대오를 유지해온 민주당은 1987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아권 진영의 본격적 분열을 경험했다.

DJ는 아권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자 탈당, 평화민주당을 창당했다. 비록 대선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호남의 강한 지지를 등에 업고 70석을 확보, 제1 야당의 자리를 쟁취했다. 1992년 대선에서 YS에 패배한 DJ는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했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이때 민주당 소속 의원 95명 중 65명이 탈당해 신당에 참여했다. 호남은 새정치국민회의의 간판을 바꾼 민주당에 다시 강한 지지를 보냈고, 1997년 대선에서 DJ가 당선됐다.

호남은 2002년 대선에서도 부산 출신의 노무현 후보에게 물표를 주며 정권 재창출에 기여했다. 이듬해 친노(친노무현)를 주축으로 한 창당파가 '100년 전국정당'을 표방하며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친노와 호남의 관계가 악화됐지만,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탄핵 역풍'에 힘입어 제1야당이 되고, 구민주계의 새천년민주당이 의석 9석의 '조마 민주당'으로 전락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2007년 대선 전까지 민주당 탈당파와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까지 끌어모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합당,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호남민심을 대변하는 하나의 단일 대오를 재구축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당명이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여러 번 바뀌어도 호남은 아당의 든든한 지지기반으로 단일 대오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호남향우회 일부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전경배 의원의 '국민회의' 합류를 선언하고, 동교동계의 안철수 신당 합류까지 점쳐지는 등 호남이 처음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때와 달리 이번에는 호남 세력이 먼저 개혁신당을 부르짖으며 당을 나가는 모양새라는 점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실국장, 부단체장 등 19명 인사 단행

전남도는 30일 실·국장, 준국장, 부단체장 등 19명에 대한 인사를 2016년 1월 4일자로 단행했다.

일반직(연구직)고위공무원은 최경주 농업기술원장이 공모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후임에는 김성일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이 승진 임용됐다.

이기환 관광문화체육국장(직무대리)은 직급 승진했으며, 신임 해양수산국장은 박군조 농림축산식품국장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국장 후임에는 이사관이 맡는다.

윤승중 공무원교육원장(직무대리)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후임 원장에는 박군조 농림축산식품국장을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국장 후임에는 이사관이 맡는다. 전남도는 과장급과 5급 이하 인사도 별도 인사예고를 거쳐 1월 22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

전남도 신임 실국장급 프로필



김성일 농업기술원장 'FTA 파고'에 맞서 전남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전남성을 인정받아 발탁. ▲영광(55) ▲서울대 농업교육과 ▲재해대응과장, 김제시농업기술센터장,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



이기환 관광국장 지난 7월부터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맡고 있다. '현장중심형'으로 곳곳을 찾아 '관광 전남'의 근간을 다졌다. ▲여수(58) ▲광주대 법학과 ▲토지관리과장, 관광정책과장, 담양군 부군수



전종화 농림국장 공직 입문 후 다양한 실과에서 근무했으며, 그 같은 경험을 살려 좋은 성과를 냈다. ▲강진(56) ▲방통대 농학과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광양청 행정개발본부장



배택후 해양국장 행정고시 38회로, 고시 인맥을 갖고 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해양수산융합밸트 조성사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주목. ▲순천(45) ▲전남대 행정학과 ▲해남군 부군수, 투자정책국장, 경제과학국장



윤승중 자치국장 풍부한 경험과 깔끔한 성격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 업무 성과를 내는데 정평. 논란을 겪던 공무원교육원의 이천도 무난히 이끌었다. ▲광주(58) ▲방통대 행정학과 ▲장흥군 부군수, 의회 총무담당관, 공무원교육원장



박군조 교육원장 농축산업, 전라도 음식 등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거둬도 손색이 없을 실력을 갖췄다. 교육원 이전과 공무원 실력 향상을 진두지휘. ▲담양(58) ▲조선대 행정학과 ▲식품유통과장, 강진군 부군수, 농림축산식품국장



문동식 광양청본부장 치밀하고 원작적인 업무스타일로, 지지부진한 광양경제청의 개발사업을 궤도에 올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남(56) ▲광주대 법학과 ▲신안군 부군수, 정책기획관, F1대회조직위 본부장



위안부 피해자 추모 집회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회 및 제12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에서 김원욱(왼쪽), 이용수 할머니가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66.3% "日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반대"

리얼미터, 성인 535명 설문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최종 합의하면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과반수 이상이 소녀상 이전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전국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응답자의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찬성한다'는 응답(19.3%)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29일 전국 19세

성인 53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포인트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과 수도권에서 반대 의견이 70%를 넘었다.

광주·전라와 부산·경남·울산에서도 반대 의견이 각각 67.7%, 66.3%로 과반수를 넘었고 대구·경북에서는 49.5%가 반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지난 30일 한일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를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관위 "예비후보, 선거구 없어져도 선거운동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해부터 현행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유력해짐에 따라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잠정적으로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 무효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회가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위원회는 헌법

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입법 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의 공정함 및 정당성 측면을 고려해 우리 위원회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이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새해 1월 8일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대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총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p>남</p> <p>의사, 변호사, 약사, 원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27~36세</p>	<p>남</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층구 70m 하노텔 B10 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Ym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뇨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M NAVER 백세생활건강 ▼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